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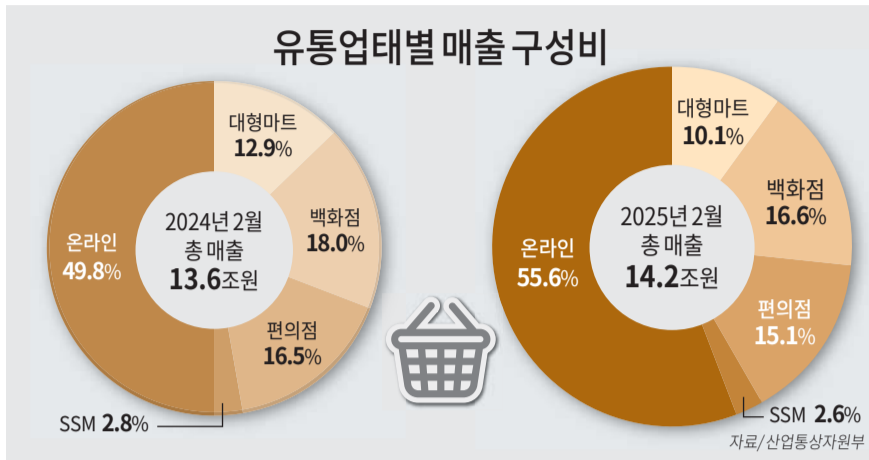
# 오프라인 ‘주춤’, 온라인 ‘선방’ 명절 특수 빠지자 희비 갈렸다

**산업부, 2월 유통업체 매출 전년비 4.4% 상승 14.2조에도 마트 18.8%·편의점 4.6% 줄어 온라인 비중은 55.6% 첫 돌파**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온·오프라인 간 희비가 엇갈렸다. 온라인은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전년 대비 16.7% 상승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전달 설 특수 영향으로 7.7% 빠졌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주요 유통업체 총 매출은 14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4% 성장했다. 온라인이 두 자릿 수 성장했으나, 오프라인 매출은 크게 감소한 결과다.

오프라인은 지난해 2월에 있었던 설 특수가 1월에 이미 발생했고, 2월 영업일수가 1일 감소함에 따라 대형마트(-18.8%), 백화점(-3.6%), 편의점(-4.6%), 준대규모점포(SSM, -1.2%) 등 모든 업체에서 감소했다.



온라인의 경우 온라인 배송 강화, 음식 배달, e-쿠폰 수요 증대 등으로 식품(14.9%), 서비스/기타(76.3%) 부문에서 성장을 지속 견인했다. 반면, 해외 직구와 소비심리 위축 등에 따라 패션/의류(-9.7%), 스포츠(-9.8%) 등의 부진은 지속됐고, 신하기를 맞아 가전/전자(3.6%) 분야는 5개월 만에 반짝 상승했다.

상품군별은 서비스/기타(35.7%), 해

외유명브랜드(4.5%), 가전/문화(2.9%) 등이 증가한 반면, 식품(-1.5%), 패션/잡화(-5.1%) 등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5.8% 포인트 오른 55.6%를 기록했다. 반면, 오프라인 매출 비중은 백화점 16.6%, 편의점 15.1%, 대형마트 10.1%, SSM 2.6%로 모두 감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의정부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투심 통과

총 2465억 투입해 노후화 재건축

경기의정부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25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5년도 제1회 민투심을 열어 환경 사업 2건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총사업비 2465억 원을 들여,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재건축하고 지상부에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마련된 공사비 특례를 적용받아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의정부 인근 20여만 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경기 용인시에서 이 사업 잔여 운영 기간(2030년 2월 만료) 동안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협약서상

운영 비용을 조정하고 사용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건설경기 진작과 사회기반 시설 적기 공급을 위한 ‘2025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예년보다 1조 원 수준 상향된 ‘18조5000억 원+α’ 규모의 신규 사업 발굴 목표 하에 2월 말 기준 3조5000억 원을 발굴했다. 민자사업 집행도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인 2조80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인프라펀드 출범(2025년 2월), 역대 최대 신용보증 공급(2조→4조원) 등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김 차관은 “민간투자사업 경험이 적은 지자체 공무원, 지역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며 “민자교육을 상시화해 민간투자사업 참여자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美 관세 리스크, 韓기업 이익 최대한 보호”

**산업부·무협 ‘대미 통상현안 간담회’ 상호관세 부과 전 업종별 영향 점검**

정부가 트럼프 관세리스크 대응을 위해 무역업계와 정례 소통 채널을 구축해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대미 무역 통상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내달 2일 미 정부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조치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수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수출업계와의 상시 소통을 위해 매달 업종별 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수렴하는 소통 채널로 만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자동차, 포스코, 현대제철, HD현대에너지솔루션,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미 수출·투자 기업들과 한국철강협회 등 유관협단체 임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실행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및 추가적인 관세 조치 가능성에 따른 우리 수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미국 현지 철강 진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철강 관세조치 등에 대한 업계 대응 현황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이미 실행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와 더불어 내달 예정된 상호관세가 우리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미국 관세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불공정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인교 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장관급 방미를 통해 미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4월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의 불공정 무역 시도에 대해서도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철강제품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제도화 등 불공정 수입 모니터링 강화,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무역정책과 통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무역업계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상반기 집중적으로 무역협회에서도 미 조야를 아우르는 아웃리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국회·검찰, 국가기관 신뢰도서 ‘하위권’

통계청, ‘2024 한국의 사회지표’

국가기관 중 국민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지방자치단체, 군대, 경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뢰도가 낮은 순으로는 국회가 1위, 검찰이 2위에 자리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55.3%), 군대(51.3%), 경찰(50.8%), 법원(46.1%) 순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중앙정부(44.0%)가 이었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2023년 기준 53.8%에서 크게 떨어졌다. 이어 검찰(43.0%), 국회(26.0%) 순이었다.

국회의 경우, 신뢰도가 가장 낮았지만 전년 대비로 유일하게 상승(1.3%포인트)했다. 연령대별로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60세 이상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다.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50대(24.1%)가 가장 낮았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40대(49.1%)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회와 경찰을 제외한 모든 국

가기관에서는 19~20세의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이 사회지표에는 12·3세대 이후 일련의 정치상황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8·9월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지난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었다. 비중이 77.5%로, 전년(82.9%)보다는 5.4%p 줄었지만 여전히 1위를 지켰다. 그 뒤로는 ‘빈곤층과 중상층’(74.8%), ‘근로자와 고용주’(66.4%)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회갈등 인식이 낮은 종교와 남녀는 전년 대비 늘어나 다소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갈등 인식이 가장 낮은 유형은 ‘남자와 여자’(51.7%)였는데 전년 대비 9.5%p나 증가했다.

‘종교 간’의 갈등도 51.8%로 2023년 조사 때보다 9.5%p 늘었다. 이 밖에 ‘수도권과 지방’(58.6%), ‘노인층과 젊은층’(58.3%)도 전년 대비 각각 1.8%p, 3.1%p 소폭 늘어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 파키스탄에 씨감자 종합 생산단지 준공

농진청, 3.2ha 규모 첨단 시설

농촌진흥청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을 통한 ‘무병 씨감자 종합 생산단지’를 준공했다고 25일 밝혔다.

농진청은 지난 2020년부터 파키스탄에서 KOPIA를 추진해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해 왔다. 특히 수경재배 기술을 적용해 파키스탄의 무병 씨감자 생산성을 6배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KOPIA는 농진청이 주관하는 국제개발 협력사업으로, 협력 대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생산성의 큰 폭 향상에 고무된 파키스탄 정부는 2023년 5월 ‘무병 씨감자 자급시스템 구축’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했다. 무병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 등에 5년간(2023~2028년) 양국이 각각 250만 달러씩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수경재배 온실, 증식용 망살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첨단 시설을 완비한 3.2헥타르(ha) 규모의 코피아 무병 씨감자 종합 생산단지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향후 이 단지를 거점으로 올해 씨감자 1200톤을 생산하고 2028년까지 씨감자 공급량을 연간 16만 톤(파키스탄 전체 소요량의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 동서발전, 남석열·김봉민 부사장 선임

이달 20일 주주총회 열어 임명

한국동서발전이 신임 부사장 인선을 완료했다. 25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지난 20일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기획관리부사장에 남석열 전 기획본부장을, 신임 안전기술부사장에 김봉민 전 발전처장을 선임했다.

남석열 신임 기획관리부사장은 대구 영진고, 국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전력에 입사했으며, 동서발전 인재경영처장, 동해발전본부장, 울산발전본부장, 기획본부장을 역임했다.

김봉민 안전기술부사장은 전주 동암고, 전북대정밀기계공학과, 연세대(기계공학 석사), 핀란드 Aalto대(경영학 석



남석열 기획관리부사장 김봉민 안전기술부사장

사)를 졸업하고 한전에 입사, 동서발전 발전운영실장, 건설처장, 기획처장, 발전처장 등을 역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